

BREAKINGBARRIERS

everybody belongs ■ everybody serves

<장애물 헐기>

모두가 하나되어, 모두가 섬긴다

Winter 2019 Theme: Disability Advocacy	2019 년 겨울 주제: 장애우 사역
<p>In this issue, people who are involved in disability advocacy describe how and why they engage in advocacy with people who have disabilities and the challenges they face.</p>	<p>이번 호에서는 장애우 사역에 몸담은 분들이 장애우 사역에 헌신하게 된 이유와 당면한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방법을 다룹니다.</p>
Addressing Disability Stigma by Leading Personally	개인적 관심으로 장애우의 상처를 감싸안기
by Gerri Yoshida	게리 요시다
Japanese American United Church	일본인 미국 연합 교회
(RCA-United Methodist), New York City	(미국개혁교회-연합감리교회), 뉴욕시
<p>Mana Hashimoto and I started working together in 2014 to find new performance opportunities for her as a blind choreographer and dancer. This led to my profound respect and enthusiasm for Mana's commitment to dance without sight. I saw her desire to make dance accessible to people with visual impairments through audio descriptions of her dance, preshow walk-throughs of the dance space, and allowing audience members with visual impairments to feel her props and costume so they could imagine and participate in her performances.</p>	<p>마나 하시모토와 저는 그녀가 시각 장애인 안무가 및 댄서로서 공연할 수 있도록 2014년부터 함께 일했습니다. 저는 앞이 보이지 않는 마나의 춤에 대한 헌신에 깊은 존경과 열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나가 시각 장애인들도 댄스를 접할 수 있도록 오디오 해설을 제공하고, 공연 시작 전 무대를 걸어볼 수 있도록 하며 소품과 의상을 만져보고 공연이 어떨지</p>

	<p>상상하고 실제로 참여할 수 있게 하려는 열정을 보았습니다.</p>
<p>In Japanese and Asian American cultures, there is strong shame, stigma, and silence around disability issues. However, God led Mana to advocate for the needs of those with visual impairments, and that helped her rise above helplessness and despair. In fact, four years ago, our church, the Japanese American United Church in New York City, celebrated its first Disability Awareness Sunday. By focusing on various physical and mental disabilities, we hope to make conversations more accessible.</p>	<p>일본 및 아시아계 미국 문화 속에는 장애인 문제를 둘러싼 강한 수치심과 낙인, 그리고 침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나를 사용하셔서 시각 장애인들의 필요를 위해 발벗고 나서게 하셨으며 무력감과 절망을 딛고 일어나게 도우셨습니다. 사실 4년 전 뉴욕시의 우리 일본인 미국 연합 교회는 첫번째 장애인 주일을 기념했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장애에 중점을 두어 우리는 좀더 열린 대화를 하기를 꿈꿨습니다.</p>
<p>“It is important for individuals to become independent and play a role in leadership,” says Mana, who serves as our church’s disability advocate. “Often people look at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someone who needs care, but like any other individual, we have potential and gifts. Inclusion doesn’t mean one side supports the other; it means both sides are supporting each other.”</p>	<p>“각자가 독립적인 개인으로 서고, 지도자적인 역할을 맡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우리 교회의 장애인 사역을 맡은 마나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장애인들을 돌봄이 필요한 존재로 바라보지만 다른 사람럼 우리도 재능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포용은 한쪽에서 다른 한쪽을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양 쪽이 서로 지지하는 것입니다.”</p>
<p>Attending this year’s RCA/CRC Disability Leadership Training empowered us to more boldly champion the belief that “everybody belongs, everybody serves.” We desire to include and provide a sense</p>	<p>금년 RCA/CRC 장애우사역 지도자훈련은 “모두가 하나되어, 모두가 섬긴다”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담대하게 외치도록 힘을 실어</p>

<p>of belonging to people who are isolated due to aging and illnesses. We want to train our children and young people to be sensitive and proactive. Most importantly, we recognize that people with disabilities deserve to have their independence recognized and respected. Through contributing their gifts, leadership, and interests, they enrich the whole body of Christ and extend God's kingdom work.</p>	<p>주었습니다. 우리는 노화와 질병으로 소외된 사람에게 소속감을 주고 공동체 안으로 포용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와 젊은이를 더 민감하고 적극적으로 되도록 훈련하기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를 가진 사람의 독립성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점입니다. 그들의 재능, 리더십, 관심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더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p>
<p>Making a Place of Welcome for All by Cara Milne</p>	<p>모든 사람이 환영받는 곳으로 만들기 카라 밀네</p>
<p>Classis Alberta South/Saskatchewan (CRC) regional advocate</p>	<p>알버타 사우스/사스캐치완 노회(CRC) 지역담당자</p>
<p>My life is a reflection of Philippians 4:13,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who strengthens me."</p>	<p>"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 장 13 절, 이 말씀은 제 삶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p>
<p>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being a guest and belonging. As a speaker and author who specializes in community building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see www.mpoweredplanning.com), I am often asked by churches how to begin to include people who are vulnerable. Although there is no one perfect way, there are specific things we can do to help create an atmosphere that includes everyone:</p>	<p>손님과 주인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장애우를 위한 공동체를 세우는 전문 강사와 작가로서 어떻게 연약한 사람을 포용하는 것을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주 질문을 받습니다. (www.mpoweredplanning.com를 참조하십시오.) 물론 완벽한 한가지 방법은 없지만, 모든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p>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nguage: Always keep in mind that a person is first, and their disability or labels are secondary. We want to refer to people with disabilities, not disabled people. Also, avoid a high-pitched or condescending tone of voice. When we talk to adults as if they are babies, we increase the stereotype that they are childlik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 항상 사람이 먼저이고, 그 사람이 가진 장애나 꼬리표는 부차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지 장애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른에게 말하면서 아기를 대하듯 한다면, 곧 그 어른이 어린애 같다는 편견을 갖게 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spect: Aim to get to know people—their interests, roles, and hobbies. When conversing with a person who has a disability, talk as you would to any other pers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경: 사람들을 -그들의 흥미, 역할, 취미를- 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대화할 때,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말하십시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ntribution: No one wants to be a charity, so we need to give people a chance to genuinely participate and contribute in congregational life. Support people to give back in any way that fits for them, whether as a greeter, usher, coffee maker, or whatever el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여: 누구도 자선의 대상이 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회중의 삶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새 가족부나 안내 위원 혹은 커피 담당이든지 그들에게 맞는 방법으로 기여하도록 도와십시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on't take over: A support person or volunteer should not take over everything. For example, a Sunday school class might want to inclu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신하지 않기: 도우미나 자원봉사자가 모든 것을 대신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p>Jessica, but then assume that her volunteer will do everything for her. Volunteers should not help Jessica make every craft perfect. Instead, they need to focus on the importance of having Jessica connect to her peers. Focus on relationships first, and skills or academics second.</p>	<p>주일 학교에 제시카를 포함시키고자 할 때, 자원봉사자가 제시카를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우미들은 제시카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도록 도와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제시카가 다른 아이들과 교류하는 데에 중점을 뒀야 합니다. 관계에 우선적인 초점을 두고, 기량이나 학습은 부차적으로 생각하십시오.</p>
<p>Remember that it is often a slow journey, but start where you are. In the end, we are all better when we all belong.</p>	<p>이것은 느린 여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시작하십시오. 마침내, 우리 모두가 속하게 될 때 우리는 모두 지금보다 나아질 것입니다.</p>
<p>My Path to Disability Advocacy</p>	<p>장애우 사역으로 가는 나의 여정</p>
<p>by Sonrisa Cortes</p>	<p>손리사 콜츠</p>
<p>RCA Disability Concerns intern,</p>	<p>미국개혁교회 장애우사역 인턴</p>
<p>Western Theological Seminary, Holland, MI</p>	<p>미시간주 홀랜드시, 웨스턴신학교</p>
<p>My most beloved role as an advocate has been working as a home health aide for Amy*. Amy has cerebral palsy and some cognitive limitations. She uses an electric wheelchair and has limited use of her arms and legs. Amy has high anxiety and does not enjoy changes in her routine, but there are afternoons we leave her house and go into the community. These days are always extra special.</p>	<p>에이미*를 위한 도우미로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역할은 가정 건강 보조사로 일해온 것입니다. 에이미에게는 뇌성마비와 인지장애가 있습니다. 그녀는 전기휠체어를 사용하고 팔다리를 제한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에이미는 심한 불안증이 있고 일상의 변화를 좋아하지 않지만, 종종 오후에</p>

	<p>저와 함께 집을 떠나 바깥 활동을 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들은 언제나 특별했습니다.</p>
<p>But Amy and I are not always treated respectfully: Amy is often met with baby talk and comments on “how well she is doing” for simple tasks like driving her chair. She’s been told how “cute” she is simply for shopping in the grocery store.</p>	<p>하지만 에이미와 제가 언제나 정중한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에이미는 휠체어를 스스로 작동시키는 간단한 일에도 “휠체어를 잘 미네” 등의 아기를 대하는 듯한 말을 많이 듣고, 단순히 식료품을 쇼핑하는데도 얼마나 “귀엽네” 같은 칭찬을 받습니다.</p>
<p>These people pity my friend. In reality, they are the ones I take pity on. They do not know how talented Amy is in finding the perfect song to match the mood, nor how loving she is. They don’t know what a great aunt she is to her nephew, or how smart she is. To them, Amy is a disability, not Amy who happens to have a disability.</p>	<p>이런 사람들은 내 친구를 동정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내가 동정하는 사람은 내 친구가 아니라 그들입니다. 그들은 에이미가 분위기에 딱 맞는 노래를 얼마나 잘 찾아내는지, 또 얼마나 에이미가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또한, 그들은 에이미가 조카에게 얼마나 멋진 고모인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에이미는 장애인입니다. 장애를 갖게 된 한 명의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p>
<p>My time with Amy reminds me that raising awareness about disability is something I am passionate about, and disability advocacy has a long way to go. I advocate for friends and for strangers I have yet to meet. I strive to make my communities more inclusive and welcoming to all people. This is why I have dedicated myself to become a disability advocate.</p>	<p>나는 에이미와 시간을 보내며 장애에 관한 인식을 높이는 것에 열정을 갖게 되었고, 장애우사역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는 아직 만나보지 못한 친구와 낯선 사람을 지지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더 포용하고 환영하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내가 장애우 지지자로 헌신한 이유입니다.</p>

<p><i>*Name changed for privacy</i></p>	<p>*프라이버시를 위해 가명을 사용했습니다.</p>
<p>Editor's Note</p>	<p>편집자 주</p>
<p>The Art of Advocacy</p>	<p>장애우사역의 기술</p>
<p>Although I've lived my entire life with a disability, it wasn't until my mid-30s—when I agreed to serve on the board of directors for the local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that I was confronted with the need to begin advocating for other people with disabilities. That was nearly three decades and three job changes ago, and I'm still learning what it means to be an effective advocate, even in my tenth year as RCA coordinator for Disability Concerns. Disability advocacy is more art than science.</p>	<p>비록 저는 평생토록 장애인으로 살아왔지만, 제가 30대 중반에 독립적인 삶을 위한 지역 센터의 이사회에서 섬기기로 결정하고 나서야 장애가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했습니다. 그것은 거의 30년 전, 직장을 세번이나 옮겼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RCA 장애인 사역부 코디네이터로 섬긴지 십년차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효과적인 지지자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배우고 있습니다. 장애우 사역은 과학이 아니라 기술입니다.</p>
<p>I can think of at least three components that are great assets for disability advocates—awareness, humility, and courage.</p>	<p>저는 장애우 사역에 필요한 훌륭한 자원을 최소한 세 가지 들 수 있습니다. 지식, 겸손, 그리고 용기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wareness means becoming educated about a particular disability-related issue and empathizing personally with those who are feeling excluded because of their disab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식은 특정 장애 관련 이슈에 대해 교육을 받고, 장애로 인해 소외된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것을 뜻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Humility acknowledges that I do not understand all the issues at work. Even if I think I know exactly how a situation can be corrected, it's likely that I do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겸손은 자신이 모든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나아질지 정확히 안다고

<p>understand everything involved.</p>	<p>생각할지라도 내가 모든 사안을 다 알고 있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urage is a willingness to “put myself out there” and risk opposition for the good of oth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기는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의지를 말하며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뜻합니다.
<p>Experience also comes in handy, but it’s not as important as awareness, humility, and courage. Receiving affirmation and support from others are gifts that keep on giving, especially from those who have been excluded; keep in mind that their pain has been lessened by your efforts, regardless of whether the desired change actually is made to your satisfaction.</p>	<p>경험도 유용하지만 지식, 겸손, 용기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타인으로부터 확신과 지지를 받는 것은 우리가 계속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소외를 당했던 사람들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던 변화가 실제로 만족할 만큼 일어나는 것과 상관없이, 그들의 고통이 여러분의 노력으로 인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p>
<p>Finally, reading the stories in this issue submitted by other disability advocates gives a shot in the arm to my own awareness, humility, and courage. I’d love to hear yours.</p>	<p>마지막으로 이번 호의 장애우 사역을 하는 여러분들에 관한 이야기들은 제 자신의 지식, 겸손, 용기를 무장하도록 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을 차례입니다.</p>
<p>—Terry A. DeYoung</p>	<p>-테리 A.드영</p>
<p>Upcoming Themes</p>	<p>다음 호 주제</p>
<p>Spring 2019—Mental health and spiritual practice. How does living with a mental illness shape our faith and spiritual practice? As people who belong to Jesus Christ—body and</p>	<p>2019 년 봄-정신건강 및 영적 성장. 정신질환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신앙과 영적인 삶을 어떻게</p>

<p>soul, in life and in death—where do the rhythms of mental wellness, devotional life, and personal discipleship intersect? Please send us a note (not to exceed 400 words) about your experience by February 7.</p> <p>Summer 2019—Down syndrome</p>	<p>변화시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육체와 영혼, 삶과 죽음에서-에게 있어서 정신건강, 신앙생활 및 개인의 제자도가 만나는 지점은 어디 입니까? 2월 7일까지 여러분의 경험에 관한 글을 보내주십시오. (글자수 제한: 400 자)</p> <p>2019년 여름-다운증후군</p>
<p>Do you or a loved one have Down syndrome? Please send us a story (400 words)—whether a joy, a challenge, a loss, or a prejudice you’ve experienced—by April 8.</p>	<p>여러분 자신이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4월 8일까지 보내주십시오. 기쁨이든, 어려움이든, 슬픔이든 편견이든 여러분이 경험한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p>
<p>© 2019 Disability Concerns ministries of the Christian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 and the Reformed Church in America. <i>Breaking Barriers</i> is published quarterly by CRC Disability Concerns, 1700 28th St. SE, Grand Rapids MI 49508-1407, and P.O. Box 5070, STN LCD 1, Burlington ON L7R 3Y8; and by RCA Disability Concerns, 4500 60th St. SE, Grand Rapids MI 49512-9670. Rev. Mark Stephenson, director of CRC Disability Concerns (888-463-0272; mstephenson@crcna.org), and Rev. Terry DeYoung, coordinator for RCA Disability Concerns (616-541-0855; tdeyoung@rca.org), edit <i>Breaking Barriers</i> together. Permission is given</p>	<p>© 2019년 CRC/RCA 장애인 사역부 <장애물을 넘기>는 CRC 장애인 사역부 (1700 28th St. SE, Grand Rapids MI 49508-1407 및 P.O. Box 5070, STN LCD 1, Burlington ON L7R 3Y8)와 RCA (4500 60th St. SE, Grand Rapids MI 49512-9670) 에서 CRC 장애인 사역부 디렉터 마크 스테판슨 목사 (888-463-0272; mstephenson@crcna.org) 와 RCA 장애인 사역부 코디네이터 테리 드영 목사(616-541-0855;</p>

<p>to make copies of articles as long as the source is recognized.</p>	<p>tdeyoung@rca.org)가 편집하는 계간지입니다. 출처를 밝히실 경우 전재나 복사 하실 수 있습니다.</p>
<p>A collaborative disability ministry of the Christian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 and the</p>	<p>북미주 개혁교회와 미국 개혁교회가 연합으로 하는 장애우 사역입니다.</p>
<p>Reformed Church in America</p>	
<p>www.crcna.org/disability • www.rca.org/disability</p>	<p>www.crcna.org/disability • www.rca.org/disability</p>